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지장보살

(地藏菩薩, 끄씨띠가르바, kṣitigarbha)



지장보살은 대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장보살의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월륜 또는 일륜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의주로도 설명한다. 대일경소에서는 지장삼매에서의 여의주는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고 하며, 무량의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맡는다고 한다.

지장보살의 형상은 후세에 위경들이 생기면서 두건을 쓰고 석장을 든 사문(沙門)상과, 육도중생을 관장하는 육지장과 승군지장 등이 출현기도 하지만, 본 지장원에서는 보살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형상: 백 살색, 오른손에는 보주를 가슴 앞에 들고 있으며, 왼손에는 광염가운데 보주를 얹은 당번을 자루가 긴 연꽃위에 세워들고 있으며, 적 연화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⑮ 뇌병변장애 김준엽 씨

입에 문 막대기로 자판 치는 시인

현재 일본에서는 2021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이 경기에 이어 8월 24일부터 세계장애인 선수들이 모이는 제16회 도쿄 패럴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리는 패럴림픽 정식경기 종목 중에 보치아경기 강국이다.

보리수아래에도 보치아선수인 김준엽 씨가 있다. 김준엽 씨는 25살 때인 1993년 보치아선수를 시작했다. 각종 국내대회에서 맹활약하며 1998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1999년도에는 방콕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그 후 다시 2014~2015년, 2017년 다시 국가대표로 각각 선발돼 2014년 인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각각 금메달(2관왕) 획득, 2017 보치아 방콕 월드오픈대회에서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획득 등 큰 활약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시집 4권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태어난 김준엽 씨는 생후 4개월 쯤 심한 황달로 장애인이 되었다. 열 살이 넘어 한글을 깨우쳐 펜을 입에 물고 글자 쓰기를 시작하면서 책도 읽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인이 되게 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글씨 연습 삼아 써가다 보니 시가 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하이텔 등 PC통신에 자신의 시를 연재하기도 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며 "입에 막대기를 물고 컴퓨터 자판을 쳐서 글을 쓴다고 하면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막대기를 입에 물고 있어 잇몸이 짓물러서 받는 고통보다 내가 쓴 시에 읽은 사람들이 반응해준대서 오는 희열이 컸다"고 말했다.

활발한 보치아선수 생활을 하며 배움에 대한 열망도 커져서. 2006년에는 37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음해 특수학교인 울산 메아리학교에 입학하였다. 경주 외동읍의 집에서 울산의 학교까지 전동휠체어로 1시간 30분 거리를 통학하며 하루의 결석도 없이 5년만에 중 ·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2010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학교생활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해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반추하다〉 등 4권의 개인 시집을 냈다. 운동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 솟대문학상,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3월 모 일간지에서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이 쓴 김준엽 씨 관련 기사를 안타깝게 읽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첫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시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이 연변 조선족 학교 교과서인 '조선어문' 9학년 하권에 윤동주의 시로 소개가 되어있어 빠른 시일 안에 교과서 개편 작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 시 제목을 검색하면 윤동주의 시로 소개되어 있다.

이미 이 시의 저자권 문제는 2013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계와 기타 많은 언론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나 김준엽 씨의 시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 어떤 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윤동주 시인의 시로 올렸다가 김준엽 씨의 시임을 늦게 알고 미안함을 전하는 글을 올려놓기도 했다.



패럴림픽 보치아 국가대표선수이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엽 씨.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보리수아래에도 시를 쓰는 작가와 음악인, 사진작가, 화가 등이 여럿 있어서 종종 느끼는 일이다.

김준엽 씨에게 2021년 세종도서 교양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에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세 번째 홍현승 시집 〈등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는 책을 낸 출판사에서 작가들을 장애작가로 한정하지 않고 바른 대접해준 데서 시작되었고 장애를 앞에 내놓지 않고 공모에 참여한 모든 책과 공정한 심사로 경쟁하여 선정된 데 의미가 있다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또 내년에도 다른 시인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인식개선은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빼고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김준엽 씨는 안산시장애인체육회 직장부 보치아 선수로 있으면서 보치아 경기 훈련을 하고 시인으로서 작품을 꾸준히 쓰고 있다. 김준엽 씨는 장애인들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장애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 하지 말고 무엇이든 행동에 옮기세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성취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라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불자들에게는 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했다.

오늘도 평범하고 진솔하게 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김준엽 씨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는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